

“수압 줄여도 될까요” 가가호호 방문 물 절약 호소

공무원 범죄 판결 2제

무자격 업체에 보조금 주고
1억원 챙긴 공무원 징역 6년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와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나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이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신안 출퇴근 파출소장
근무지 상습이탈 징역형 유지

광주서 신안까지 출퇴근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파출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신안군 한 섬의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을 해 경찰관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파출소를 오가는데는 하루 4차례(소요시간 1시간 30분)만 운영하는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정사를 이유로 44일의 근무기간중 14일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결근한 기간 동안 3건의 출동신고가 접수됐지만, 출동인원이 부족해 1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순찰업무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단이탈 경위·횡수·시간, 3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도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원 유재홍씨가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수압 조절 작업을 하고 있다.

‘가뭄 해결사’로 나선 광주상수도본부 수도검침원 동행해 보니

“할머니 요즘 가뭄에 물이 없어 난리예요. 수압을 좀 줄여도 될까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수도검침원인 유재홍(50)씨가 지난 2일 수도검침을 하는 주택을 방문할 때 마다 내뱉는 말이다.

유례없는 심각한 가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물 절약 실천이 저조함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이 직접 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수압조절을 권장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물 사용량 68%가 일반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난달부터 수압 조절을 통한 물 절약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 전체 세대 중 68.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동구 2만 7049세대, 서구 8만 8425세대, 남구 6만 5560세대, 북구 13만 6703세대, 광산구 12만 9210세대)의 경우 행정동(동장)에서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 수압조절을 안내하면, 관리사무소가 희망세대에 직접 수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통장들이 직접 나서 수압조절을 홍보하고 현황을 파악해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수도검침원들이 임무를 맡게 됐다.

양수기함에서 일률적으로 수압을 조절하면 노후한 수도관의 경우 누수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부엌, 욕실 등 개별 수압을 조정해야 하는 점도 검침원들이 직접 나선 이유다.

광주일보 취재진과 함께한 유씨는 지난 2일 이른 아침부터 탐구시 서구 유덕동 일대의 단독주택 가구를 돌며 수압조절을 권유하고 응하는 세대에 대해 수압을 조절했다.

단독주택·상가 돌며 수압조절 권장
광주 62명이 13만 6천 여곳 담당
“힘들어도 물 사용 줄어 들 때 보람”
시민 “물 절약하고 요금 줄어 뿌듯”

17년 경력인 유씨의 고유 업무는 수도검침과 고지서와 홍보물 전달이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 지난달부터는 과외 업무로 세대를 찾아다니며 수압조절을 권유하고 있다.

그의 손에는 수도 사용량을 기록하는 기계가 쥐어져 있고 주머니에는 주민들에 전달할 고지서와 물 절약 동참 전단지도 꼭 차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유씨가 방문하는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어 고지서와 물절약 전단지를 끼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간혹 인기가치가 들리면 일일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유씨가 임순애(여·76)씨의 집을 방문해 수압조절을 권유하자 임씨는 바로 응했다. 유씨는 임씨의 방과 화장실에 있는 수도의 수압을 낮췄다. 물기가 가득한 화장실이었던지만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대고 밸브를 조정했다.

임씨는 “최근 탱크의 저수율이 낮아져 물 절약에 동참해달라는 광주시의 알림 메시지를 받아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오늘 때 마침 물 절약에 동참하게 돼 다행이다”고 웃어보였다.

임씨는 이어 “요즘 그렇게 비상이라던데 한명 한명이 아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민들이 뚝뚝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지난달 먼저 수압을 조절한 최재석(60·서구 유덕동)씨는 유씨를 만나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씨는 “10월 물 사용량이 18t이었는데 유씨 권유로 수압을 조절하니 11월 물 사용량이 절반 수준인 9t으로 줄었다”면서 “수도요금을 매월 2만원가량을 내다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만원이 나왔다. 물 절약도 하고 요금도 아꼈다”고 한하게 웃었다.

유씨처럼 광주시내 단독주택과 상가를 돌며 수압조절을 홍보하고 권유하는 수도검침원은 총 62명(공무직 51명, 기간제 11명)이다.

이들이 맡은 검침 계량은 13만 6715개로 1인당 2400개가 넘는다. 수도검침원들은 그날 자신이 목표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검침과 수압조절에 나서고 있다.

유씨는 “최근 한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다른 직원들이 그 몫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면서 “함부로 아플수도 없지만, (내가) 권한 가정에서 수압조절로 물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금 훔쳐 올테니 현금 달라” 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15초 만에 금은방에서 수 천만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3명의 10대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장물아비 등 2명에게는 장물보관취득 및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광주동부경찰은 고교 자퇴생 A(16)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초등학생 B(12)군, 중학생 C(15)군과 함께 지난 2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충장로 귀금속거리의 한 금은방에서 유리창과 진열장을 망치로 잇따라 부순 뒤,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 과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에서 망을 보다 A·B군과 함께 도주했다.

철 없는 초등생·중학생 등 3명
4000만원 상당 귀금속 쟁겨 도주
동부경찰, 장물아비 등 체포영장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장물아비 D(19)씨를 만나 훔친 물건의 일부를 처분한 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낮 12시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650만원 상당의 귀금속 11점을 회수해 피해 업주에게 돌려줬다.

이들은 가출한 학생들로, 이 중 A군과 C군은 ‘틱톡’ 등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는 D씨와 교류하며 무면허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벌이를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

정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B군과도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용돈이 필요했는데, D씨에게 ‘금을 훔쳐 올테니 현금을 달라’고 얘기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경우 일정한 증거가 없는데다 동종 전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했으며, C군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초등학생인 B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장물아비 D씨가 A·B·C군에게 범행을 사주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장물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인인 E씨가 연루된 정황도 포착, 범행 교사 및 장물 처분 대행을 맡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 교량동서 한밤 주택 화재 80대 노모와 아들 숨진 채 발견

불이 난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순천소방은 지난 2일 밤 8시 50분께 순천시 교량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불은 밤 11시 20분께 모두 꺼졌지만, 모자관계인 A(여·80)씨와 B(58)씨가 각각 주방과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주택(41㎡)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66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주민들은 “마을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무료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고 B씨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침입이나 방화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